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1월 3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기고] 소형 농기계 올바른 보관 및 관리가 중요-14면(문영상)	서부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기고] 소형 농기계 올바른 보관 및 관리-15면(문영상)	서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13면	기술지원조정과	뉴제주일보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6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신문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6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노지감귤 고품질·고당도 생산 ‘팔걸었다’ -7면	-	제주매일
○ 월동채소·감귤 비해 콩 메밀 홀대... 정책 지원 절실-9면	-	제주매일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3일)

○ [기고] 소형 농기계 올바른 보관 및 관리가 중요-14면

소형 농기계 올바른 보관 및 관리가 중요

한 해 사용했던 농기계를 다음 해에도 문제없이 사용하려면 보관과 관리가 중요하다. 공통적 필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본다.

첫 번째, 엔진과 몸체는 닦고 기름 치고 깨끗이 청소한다. 엔진과 부속품에 낀 이물질, 펌프와 호스 내부의 농약, 모래, 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후 각 기계 회전부, 작동부, 마찰부, 케이블 등에 새 오일과 그리스를 주입한다.

두 번째, 엔진오일·냉각수·부동액을 점검한다. 엔진오일 교환 후 약 5~10분 정도 공회전시켜 각 부위에 오일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냉각수를 제거한 후에는 잘 보이는 곳에 '물 없음' 꼬리표를 부착한다.

세 번째, 엔진은 압축 상태로 보관하고 축전지는 단자를 분리한다. 엔진의 공기 흡입관 마개를 풀거나 점화플러그를 뽑고 실린더 안에 약간의 새 엔진오일을 넣은 후 시계방향으로 6~7회전 공회전



문영상
제주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시킨다. 이후 압축이 걸리는 지점에 피스톤을 뒤 배기·흡기밸브를 모두 닫고 풀어낸 마개나 뽑은 점화플러그는 다시 조인다.

네 번째, 습기가 적고 햇볕이 들지 않는 시설 내에 보관한다. 농기계는 실내에 보관해야 녹슬지 않는다. 보관 중에는 창문을 닫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머플러가식은 뒤에 덮개를 씌운다.

다섯 번째, 연료 종류에 따라 연료를 정비해 보관한다. 디젤(경유) 탱크는 연료를 가득 채워 보관해야 다음 사용 시 연료 부족으로 인한 에어 빼기나 수분으로 인한 녹슬이 없다. 반대로 가솔린(휘발유) 탱크는 연료를 모두 빼고 시동을 걸어서 기화기에 있는 모든 연료를 없앤다.

1.3.
뉴제주일보 14

(제민일보: 2024년 1월 3일)

○ [기고] 소형 농기계 올바른 보관 및 관리-15면

독자기고



문영상

소형 농기계 올바른 보관 및 관리

고 깨끗이 청소한다. 엔진과 부속품에 낀 이물질, 펌프와 호스 내부 농약, 모래, 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후 각 기계의 회전부, 작동부, 마찰부, 케이블 등에 새 오일과 그리스를 주입한다.

둘째, 엔진오일, 냉각수, 부동액을 점검한다. 엔진오일 교환 후 5~10분 정도 공회전시켜 각 부위에 오일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냉각수를 제거한 후 잘 보이는 곳에 '물 없음' 꼬리표를 부착해 냉각수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고 새 부동액을 공급하거나 농도를 확인한 후 보충한다.

셋째, 습기가 적고 햇볕이 들지 않는 시설에 보관한다. 농기계는 실내 보관해야 녹슬지 않는다. 보관 중 창문을 닫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머플러가식은 뒤 덮개를 씌운다. 고무바퀴가 늘리지 않도록 공기를 더 넣거나 몸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받쳐주되 굴러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넷째, 연료 종류에 따라 연료를 정비해 보관한다. 디젤(경유) 탱크는 연료를 가득 채워 보관해야 다음 사용 시 연료 부족으로 인한 에어 빼기나 수분으로 인한 녹슬음이 없다. 반대로 가솔린(휘발유) 탱크는 연료를 모두 빼고 시동을 걸어서 기화기에 있는 모든 연료를 없앤다.

귀찮기도 하고 습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위의 보관·관리 요령을 잘 지킨다면 작업 중 기계 고장에 따른 불편 없이 농업의 기계화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1.3.
<제주서부농업기술원> 제민일보 15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3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13면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49개 사업

△센터별 사업 및 개소수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 확인 필요

▲신청 기간=1월 2일~31일(30일간)

▲신청 방법

△방문=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우편=원본 서류를 동봉해 우편

발송(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이메일=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 발송(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 필, 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ju.go.kr>) 참고

▲문의=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1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11~3,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11~3, 서부농업기술센터 760-7911~3

(제주매일: 2024년 1월 3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9면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49개 사업

○ 센터별 사업 및 개소수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 확인 필요

◆ 신청기간: 2024. 1. 2. ~ 1. 31.(30일간)

◆ 신청방법

○ 방 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우 편: 원본 서류를 동봉해 우편 발송(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이메일: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 발송

(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 필, 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ju.go.kr>) 참고

◆ 문의 : 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1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11~3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11~3

서부농업기술센터 760-7911~3

1.3.
제주매일 9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신문: 2024년 1월 3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6면

- 신청기간 : 2024. 1. 2. ~ 1. 31.(30일간)
- 신청방법
 - 방 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우 편 : 원본 서류를 동봉해 우편 발송(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이메일 :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 발송(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 필, 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ju.go.kr>) 참고
- 문의 : 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1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11~3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11~3
 서부농업기술센터 760-7911~3

1.3. 제주신문 6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49개 사업
- 센터별 사업 및 개소수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 확인 필요

(한라일보: 2024년 1월 3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6면

제주도정소식

전세피해로 인해 전세사기피해자결정서 발급, 긴급 주거지원, 금융·법률 지원 등 피해 지원 상담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2693, 2695)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49개 사업
 - 센터별 사업 및 개소수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4. 1. 2. ~ 1. 31.(30일간)
- 신청방법
 - 방 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우 편: 원본 서류를 동봉해 우편 발송 (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이메일: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 발송 (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 필, 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 (<https://agri.jeju.go.kr>) 참고

[문의] 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1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11~3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11~3
 서부농업기술센터 760-7911~3

1.3. 한라일보 6

(제주매일: 2024년 1월 3일)

○ 노지감귤 고품질·고당도 생산 ‘팔 걷었다’ -7면

노지감귤 고품질·고당도 생산 ‘팔 걷었다’

서귀포시, 감귤원 82ha 대상 토양피복 지원 추진

서귀포시는 오는 11일까지 고당도 노지감귤 생산의 근간이 되는 ‘2024년도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서귀포시는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이 노지감귤 재배농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업임을 감안, 총 25억원을 투입해 82ha를 대상으로 노지감귤 당도 올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는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에 국산 토양피복자재 ‘트러스’를 지원품목에 신규 추가, 농가 선택의 폭을 넓힌다. **1.3. 제주매일 7**

작업단가는 타이벡이 ha당 3031만 2000원(토양피복 1947만2000원, 점적관수시설 1084만원), 하이브릭스·트러스는 ha당 2502만원(토양피복 1418만원, 점적관수시설 1084만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은 노지감귤원의 당도 향상을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지감귤 재배 농가의 고품질·고당도 감귤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두성 기자**

(제주매일: 2024년 1월 3일)

○ 월동채소·감귤 비해 콩 메밀 홀대... 정책 지원 절실-9면

월동채소·감귤 비해 콩 메밀 홀대...정책 지원 절실

농협경제제주 제주본부, 유통다각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별 유통 시장 교섭력 약화 안정적 출하처 확보 한계 대응 시급

제주산 월동채소와 감귤에 비해 콩과 메밀이 홀대받고 있어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농협경제제주 제주본부(본부장 윤재춘)가 개최한 ‘제주산 콩·메밀 가공 등 유통 다각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지역농업네트워크는 제주 콩·메밀 산업의 문제점과 이슈를 지적했다.

지역농업네트워크가 제시한 부문별 이슈는 ▲생산(농가 고령화, 기후위기 등) ▲유통(유통망 기반 약화 ▲가공·유

통)농협 개별 유통에 따른 시장 교섭력 약화, 수급불안정성에 따른 안정적 출하처 확보 한계, 중간상을 통한 원물 중심 유통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한계 ▲(소비)콩나물콩과 메밀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비자 인지도 등이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는 ▲감귤, 월동채소 대비 제주 식량산업 정책 기반 취약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으로 육자부 농촌 증가와 제주도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에 따른 월동채소의 콩나물콩 대체로 제주 콩 재배농

가 피해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산업 정책에 대한 주산지역 대응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제주 콩·메밀 산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주형 식량산업 발전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만 강한 콩·메밀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3대 영역, 9개 전략과제와 함께 27개 핵심과제도 발표했다.

27개 핵심과제 중 ▲생산-유통 계열화 ▲권역별 거점시설(SPC) 구축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통합 마케팅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등 단기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제주도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해 제주 콩·메밀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2024~2028년까지의 중기로드맵과 함께 단기 과제로 최근 이슈가 되는 ▲대두 TRQ 물량 중 콩나물콩 배정 비율 조정 ▲국가와 도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에 따라 발생한 가격하락과 농가 피해문제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대규모 콩 수요업체가 혜택을 보는 TRQ 수입 공매에 국내산 콩을 일정 부분 의무 사용케 하는 쿼터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병근 기자**